

Today's Chart

2022-08-02

[Economist] 박상현 (2122-9196) shpark@hi-ib.com, 류진이 (2122-9210) jinlee@hi-ib.com

7월 수출입, 주목해야 할 5 가지

그림1. 1~7월 누적 무역수지 적자 규모 15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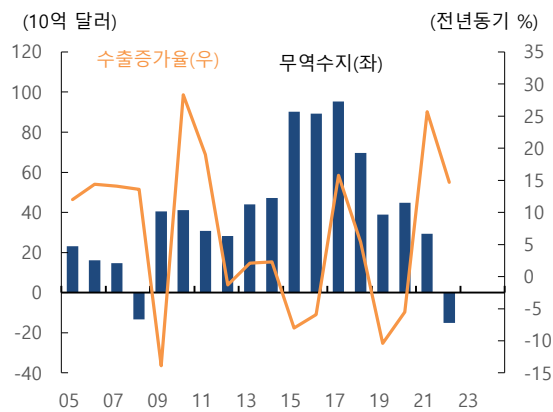


그림2. 대중국 무역수지 3개월 연속 적자



그림3. 대미 수출액은 월간 기준 사상 최고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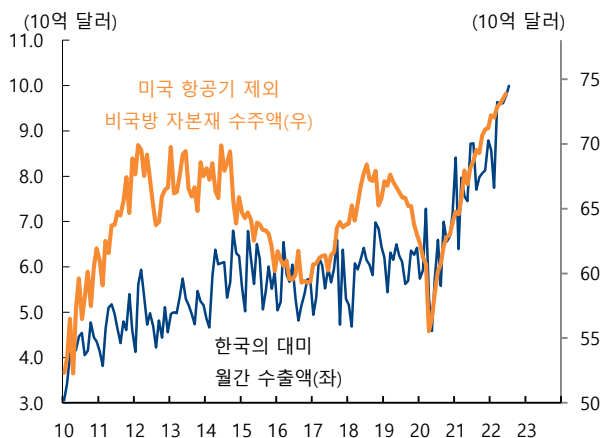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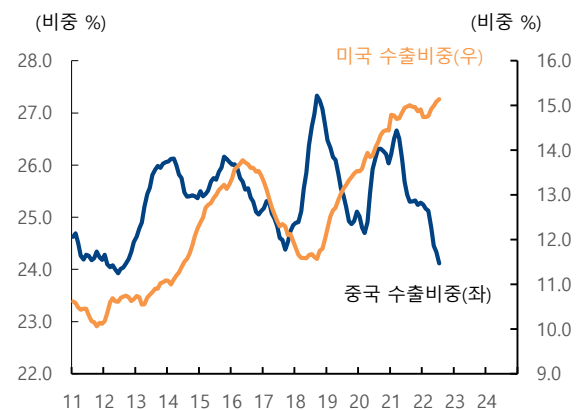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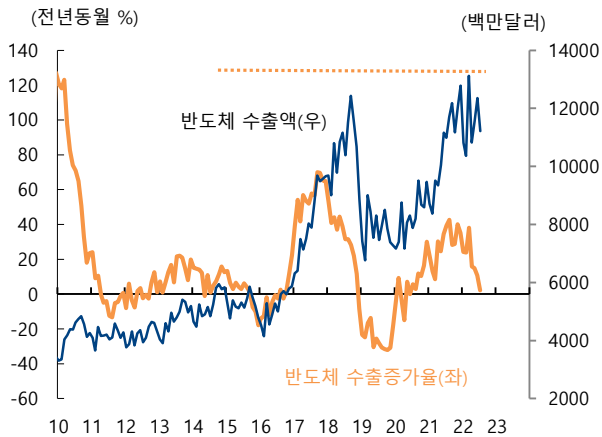


그림4. 한국의 대중 및 대미 수출 비중도 변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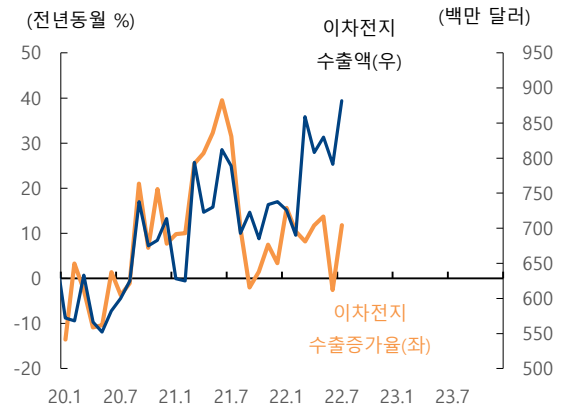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EIC, 하이투자증권

그림5. 반도체 수출증가율은 한 자리대 초반 수준으로 둔화



자료: Bloomberg, CEIC, 하이투자증권

그림6. 이차전지 수출액은 월간 기준 사상 최고액



■ 연간 무역수지 적자 가능성

22년 1~7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 150억 달러

- 7월에도 에너지 관련 수입 급증 영향으로 7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46.7억 달러로 올해 들어 1월 49억 달러 적자 이후 가장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함. 1~7월 누적 무역수지 적자 규모도 150억 달러로 이미 연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던 08년 132.7억 달러를 상회함. 남은 하반기 기간에도 무역수지 흑자 전환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08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공산이 높음. 08년 당시에도 수출은 호조(08년 연간 수출증가율 13.6%)에도 불구하고 유가 급등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입증가율이 22% 증가하면서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바 있음
- 결국 남은 하반기 국내 무역수지 적자 폭 축소 혹은 흑자 전환 여부는 수출보다는 수입증가율, 특히 에너지 가격에 달려 있음. 현재의 유가 수준이 유지된다면 올해 연간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1996년 적자규모인 206억 달러 수준을 상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무역수지 적자 기조는 원/달러 환율에 부담을 줄 전망임. 다행히 달러 강세 현상이 주춤해지고 외국인인 7월 한달 동안 2조원을 상회하는 주식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다소 하향 안정되었지만 무역수지 적자 기조는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하락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대중 수출 및 무역수지 경고등

대중 수출 부진으로 30년만에 3개월 연속 대중 무역수지 적자

- 7월 수출증가율은 조업일수 감소(1일 감소)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전년동월 9.4%의 양호한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대중국 수출증가율은 전년동월 -2.5%의 감소세를 보임. 지난 4월 상하이 봉쇄 영향으로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급락한 이후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
- ※ 대중국 수출 증가율(전년동월 기준) 22년 3월 16.7% → 4월 -3.4% → 5월 1.4% → 6월 -0.8% → 7월 -2.5%
- 수출 부진 속에 7월 대중 무역수지는 5.8억달러의 적자를 보임. 6월 적자 폭(12.1억 달러)에 비해서는 축소된 규모지만 3개월 연속 적자는 30년만에 처음임
- 문제는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현상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대중 수출 부진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전 흑자 수준으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여지가 높다는 것임. 무엇보다 당사가 지적인 바와 같이 올해 중국 GDP 성장률이 3%대로 추락할 수 있음은 국내 대중 수출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칩 4 등 미-중간 공급망 갈등도 직간접적으로 국내 대중 수출에 부담을 줄 수 있음

-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대만 이슈 등 넓은 범위에서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갈등 격화 분위기가 국내 대중 수출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음. 직접적으로 한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에는 당분간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반도체 제외한 품목이 중국 정부의 통상압박으로 오히려 간접적 악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뜰이나 중국 경기가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미-중간 공급망 갈등의 불뚱이 국내 대중국 수출로 될 수도 있음

■ 반도체 수출 둔화 가시화

빛 바랜 7월 월간 기준 사상 최고 수출액

- 7월 반도체 수출액은 112.1억 달러로 7월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수출증가율은 2.1% 수준에 그침. 6월까지 그래도 두자리대 수출증가율을 유지하던 반도체 수출증가율이 간신히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한 것임
- 반도체 가격 하락과 더불어 중국 경기둔화 여파 등의 영향으로 풀이됨. 본토 수출, 즉 대중국 반도체 수출은 그나마 두자리 수출을 유지했지만 대홍콩 반도체 수출 역성장 추세에 따른 대중화권 수출 부진 영향으로 판단됨
- 반도체 업황 사이클과 홍콩을 포함한 중화권 경기를 고려할 때 반도체 수출증가율이 감소세로 전환될 여지가 커짐

■ 대미 등 주요 선진국 수출은 호조

공급망 관련 이슈 속에 국내의 대중 수출 비중은 하락한 반면 대미 수출비중은 증가

- 대중국 수출 부진과는 달리 대미 수출액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대 EU 수출액은 7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호조세를 유지중임. 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미국과 에너지 충격에 시달리고 EU 수출이 이처럼 호조를 보이고 있는 배경에는 낮은 성장률 수준과 달리 제조업 및 투자사이클이 상대적으로 견조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특히, 대미 수출 호조에는 전기차 및 이차전지 수출의 호조 영향도 크게 작용하고 있음. 참고로 이차전지의 7월 대미 수출증가율은 전년동월 52%임
-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와중에 대미 수출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18년 연간 기준 대미 수출비중은 12%였으나 22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15.7%까지 상승함. 반면 동기간 대중국 수출 비중은 26.8%에서 23.2%로 하락함
- 무엇보다 금년들어 대미국과 대중국 수출비중 비중이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단순히 중국 경기 부진의 영향인지 아니면 공급망 등 구조적 변화인지는 좀더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음. 다만, 대미국과 대 EU 수출비중이 24.5%로 중국의 23.2%를 넘어선 것은 의미가 있음

■ 이차전지 등 신성장 품목의 성장 주목

이차전지 수출액, 월간 기준 사상 최고액

- 신성장 품목이 동반 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음. 대표적으로 이차전지 수출의 경우 7월 수출규모가 8.8억 달러로 월간 기준 사상 최고액을 기록함. 물론 수출액 규모가 크지 않지만 전기차 생산확대 추세 등으로 성장 가능성은 높음
- 시스템반도체 역시 7월 46.9억달러의 수출액을 기록, 전년동월 40.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박상현, 류진이)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